

# 「中國 異民王朝 服飾에서 裘에 관한 研究」

— 遼, 元, 清朝服飾을 中心으로 —

慶尙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類學科

教授 鄭 福 南

## 目 次

I. 序 言	1. 遼朝의 契丹服飾에서 裘
II. 歷史的 背景	2. 元朝의 蒙古服飾에서 裘
1. 遼(契丹族)	3. 清朝의 滿洲服飾에서 裘
2. 元(蒙古族)	IV. 結 言
3. 清(滿洲族)	參考文獻
III. 異民王朝 服飾에서 裘	ABSTRACT

## I. 序 言

한 나라의 文化는 그 민족 본래의 고유한 전통에 주변국들과의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 및 경제적 교류와 상호접촉을 통해 새 요소를 가미하여 스스로 풍부해지면서 형성,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服飾文化 또한 다른 문화현상과 같이 전통문화와 주변의 타문화와의 지속적인 연관에 의하여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밟아 그 내용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창조되어 왔다.

毛皮服은 인류가 신체보호를 위하여 최초로 착용되었던 의복으로서 특히 酷寒이 장기간 계속되는 北方地域의 민족들에게는 신체의 보온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었던 귀중한 것이었다.

遼王朝를 건립한 契丹族, 元朝의 蒙古族, 清朝의 滿洲族은 오랫동안 中國의 동북부지역과 만주

일대에서 수렵, 유목생활을 해왔는데 이들의 거주 지역은 생활환경이 척박하여 면직물이나 비단의 생산이 없었기 때문에 衣服의 주재료는 주로 동물의 毛皮였다. 그러나 수렵유목생활로 부터 벗어나 中國大陸에 이민족정복왕조를 건립한후 中國의 발달된 문화와 다양하고 풍부한 의복재료를 접하면서 服飾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이미 발표된 「裘에 관한 研究」를<sup>1) 2)</sup> 바탕으로하여 契丹族, 蒙古族 및 滿洲族 고유의 裘衣制度和 征服王朝 수렵후 漢族文化和 접하면서 변화되었던 裘衣制度에 대해 고찰하였다.

## II. 歷史的 背景

### 1. 遼(契丹族)

契丹族은 4세기경 부터 東蒙古를 中心으로 遼河

1) 鄭福南, <中國服飾에서 에 관한 研究>, 한국복식학회지, 제21호, 1993, p.31~47.

2) 鄭福南, <갓옷에 관한 研究>, 한국복식학회지, 제23호, 1994, p.67~77.

상류인 시라무렌江(siramuren江)유역에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遊牧生活을 하였는데, 南北朝時代에는 遼河以西, 黃河유역에 거주하였고, 隋·唐代에는 오늘날의 遼寧省 西部地域에 거주하였다. 唐나라 말기에 질랄부의 족장 야을아보기가 여러부족을 통일하여 916년 帝位에 올라 국호를 大契丹이라 하였다. 그후 국호를 遼라 칭하고 만주·몽고와 화북의 일부를 지배하였으며,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었다. 契丹은 본국을 확보하면서 중국을 지배한 최초의 征服王朝였으며 1125년 女眞族의 金나라에 의해 멸망될때까지 약 200년간에 걸친 북방민족의 중국 지배의 길을 열었다. 풍속은 室韋, 高句麗, 말갈 및 돌궐과 같았다.<sup>3)</sup>

## 2. 元(蒙古族)

蒙古族은 中國의 南北朝時代 北滿洲에서 「室韋」라는 부족이름으로 散在해 있다가 隋·唐代에 점점 번성해지기 시작하여 興安嶺 西側까지 퍼져 興安嶺 東, 西에 거주하는 室韋라하여 東室韋, 西室韋, 蒙兀室韋, 洛俎室韋등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蒙兀室韋가 蒙古族의 시작이다.<sup>4)</sup> 契丹, 遼의 지배하에 있다가 11세기 경에 부락연맹을 결성하여 그 세력이 팽창하였고 마침내 1167년에는 테무진(Temujin)이 蒙古族을 통일하여 蒙古帝國을 열게되었다. 1279년에 忽必烈이 中國을 征服하고 중국·몽고식 제국인 元朝를 탄생시켜 1376년 明에 의하여 멸망될 때 까지 약 100여년 동안 中國에 異民族征服王朝를 수립하고 초기에는 그들의 문화 습관을 피지배민들에게 강요하여 지배지문화속에 그들의 습속이 점차 흡수되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蒙古朝의 성격도 중국내 몽고족의 중국왕조로 바뀌어 갔다.

## 3. 清(滿洲族)

滿洲族은 春秋戰國時代에는 肅慎, 漢代에는 挹婁, 南北朝時代에는 勿吉, 隋唐時代에는 靺鞨, 宋, 元, 明代에서는 女眞이라 불리워 졌다가 明末에 와서는 滿洲族이라 부르게 되었다.<sup>5)</sup>

明朝末期에는 海西, 建州, 野人의 3부로 나누어져 明의 간접통치를 받다가 조선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만주에 대한 明의 통제력이 이완되자 建州 佐衛의 首長 누르하치가 女眞의 여러부족을 통일하고(1616년) 汗(Khan)의 位에 올라 국호를 後金이라 하였다. 1644년 明朝를 정복하여 수도를 北京에 정하고 1661년 완전히 中國을 통일하자 국호를 大清이라 하였고 1912년 辛亥革命의 성공으로 清朝支配는 종말을 고하였다.

## Ⅲ. 異民王朝 服飾에서 裘

### 1. 遼朝의 契丹服飾에서 裘

契丹族은 원래 수렵유목을 生業으로 하였고 그들의 服裝은 毛皮를 材料로한 胡服型을 基本으로 하였다. 그러나 漢人社會와 잦은 교섭으로 인하여 漢式衣服도 流行하였고 衣服材料에도 비단이나 麻가 사용되었다.

遼王朝는 初期에는 모든 儀禮文物制度일체를 遼制로 固守하였으나 少數民族의 異民王朝로서 多數의 中國民族을 원만하게 統治하고 民心을 수습하기 위해서 後唐, 後晉의 제도를 참작하여 漢制를 만들어 併用하였는데, 太后 이하의 命婦와 契丹人 官吏들은 本族의 服飾을 着用하였다.<sup>6)</sup> 그러나 重熙(1031년)이후부터는 모든 大禮에는 漢族의 禮服制度를 따랐다. 遼人들은 契丹人의 傳統

3) 舊唐書, 卷94, 列傳 第83, 契丹條

4)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10)》, 서울: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p.405.

5) 李東香, 《遼末女眞社會의 構成》, 淸州大學校 論文集 17, 1984, p.12.

6) 田村實造, 《契丹族의 服飾》, 考古學雜誌, 33卷 12號, p.541.

服裝을 國服이라 불렀고 宋人들은 蕃服, 혹은 胡服이라고 하였다. 國服은 祭服, 公服, 常服, 田獵服, 弔服으로 구분되었다.

衣服着用時 여밈은 左衽이 主를 이루는데 匈奴, 鮮卑, 突厥, 女真, 蒙古族등이 모두 左衽의 습관이 있었다. 또한 圓領과 直領의 옷이 착용되었으나 男服에서는 圓領이, 女服에서는 直領의 着用例가 遼墓壁畫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服制로 貫哈이라고 하는 制度가 있었는데 錦이나 貂로 만들었다. 모양은 箕山같고, 양쪽 가장 자리는 覈족하다. 이 服制는 金, 元, 淸의 禮服 혹은 重要的 服制의 일종으로 정착하여 東北方民族, 北方民族 고유복의 특징을 이루게 되는데 淸에서는 이 제도를 披領이라 하였다.<sup>7)</sup>

契丹服飾에서 裘衣制度는 常服에서 찾아볼 수 있다. 常服은 長袍인데 허리에서 帶로 여미고, 안에는 襖를 입었는데 깃은 밖으로 드러내 보였다. 아래에는 袴 및 긴 皮靴를 신는다. 長袍는 圓領, 左衽, 右衽 모두다 사용되었고 窄袖이다.<sup>8)</sup> 袍는 長開釵를 양 옆에 두고 帶에는 여러가지를 패용하였다. <그림 1>

常服으로 貴人들은 貂裘를 입었는데 紫, 黑貂가



<그림 1> 五代 卓歇圖中 契丹人 髮, 圓領, 窄袖, 長袍, 腰帶, 靴(中國古代服飾史·357)

貴하였고 靑貂가 그 다음이네 銀鼠 도 비슷하였 다. 신분이 낮은 者들은 紫, 黑, 靑色을 제외한 다른색의 貂皮와 羊, 鼠, 沙狐裘등을 입었다. 銀貂는 제일 貴한 것으로 遼主의 衣服은 이것으로 하였다.<sup>9)</sup>

## 2. 元朝의 蒙古服飾에서 裘

蒙古族 固有의 男子服은 窄袖, 右衽, 交領의 長袍에 束帶를 하고 下衣로 袴를, 上衣로 襦를 착용하는 襦袴制에 長靴 착용이 정해진 격식이었다. 女服 역시 固有服은 窄袖, 左·右衽(모두 통용되었으나 左衽이 더 많았다.) 交領의 長袍에 束帶를 하였다.<sup>10)</sup> 服飾이 정치발전과 함께 제도화함으로 遼俗의 雲肩이 定制化 하게된다.

蒙古族의 특징적인 服制로서 代表的인 國服인 質孫은 漢語로는 一色衣라고 하였는데 明代에는 程子衣, 혹은 貼裏라고도 하였다. 이 의복의 形制는 交領, 右衽, 上衣下裳이 연결된 옷이며 비교적 몸에 꼭 맞고 窄袖이며 下裳도 비교적 길이가 짧아 활동하기에 편하다. 腰間에는 많은 주름이 있는 옷으로 양어깨와 등뒤에 大珠飾이 있다. 원래는 戎服으로 기마에 편하게 한 옷이다.<sup>11)</sup> <그림 2>

또 하나의 보편적인 樣式은 小袖, 左衽, 交領短上衣(衫, 襦)에 下衣로 長裙을 착용하고, 그 위에 半袖의 허리길이 對襟褂를 착용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裙을 上衣위에 둘러입는 方式을 채택한 것이다.

蒙古族이 中原을 정복한 後에는 征服王朝답게 國俗을 강요하여 支配地의 服飾습관을 크게 변형시켰다. 그러나 漢族을 다스리기 위해서 漢族式 冠服制를 수용하여 蒙古族이거나 漢人이거나 불문하고 士人들의 服飾은 그 個人의 편리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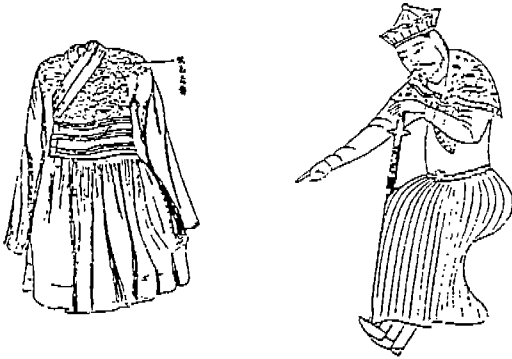
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 75, p.352.

8)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台北: 世界地理社, 民國 73, p.140.

9) 周錫保 앞의 책, p.352, 353.

10) 任明美, 《蒙古服飾》, 서울: 耕春社, 1992, p.303.

11) 周錫保, 앞의 책, p.375.



〈그림 2〉雲肩紋, 質孫, 혹은 辦綿襖子  
 (中國古代服飾史 P.429)  
 尖頂上向攬帽, 質孫, 披肩, 束帶, 蒙古固有服飾裝  
 皇帝圖  
 (中國古代服飾史 P.381)



〈그림 3〉元世朝出獵圖(宮밖에서 사냥하고 있는 쿠빌라이)  
 (中國歷代名畫集 3冊 圖14)  
 윗 그림은 王族이 평상시밖에 나가 사냥하는 모습으로 입은 것은 銀鼠 裘인데, 깃소매는 紫貂, 또는 玄狐로 선을 들렀다. 그 외의 따르는 사람은 毛皮類의 棕暗色 材料로 했다.

服飾을 취하도록 하였다.<sup>12)</sup> 國俗의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소수의 지배계층으로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다스리기 위한 文化의 수용 내지 同化는 필연적인 사실이었다.

蒙古族이 元朝를 세우기 前 이들의 衣服은 대부분 동물의 毛皮를 主材料로한 皮帽, 皮襖, 皮靴가 基本服이었고 皮毛를 제거한 것 외에는 대부분 氈裘皮革을 이용한 裘를 착용하였다.<sup>13)</sup>

漠北地域은 겨울이 되면 매우 추워서 蒙古族은 毛皮를 이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았다. 이들이 衣服材料로 사용한 毛皮는 수십종 이상이 있었는데 大毛類로는 銀狐, 猞猁를 重示하였고, 小毛類로는 銀鼠, 紫貂를 귀하게 여겼다. 이러한 毛皮들은 신분에 따라 사용된 종류나 색깔등이 엄격히 區分되어졌다. 즉 帝王은 紫貂, 銀鼠, 白狐, 玄狐등을 착용하였고, 소매나 깃에는 다른 종류의 毛皮를 대기도 하였다. 〈그림 3〉 侍從, 士庶에게는 毛氈등이 허용되었고 貂·鼠皮도 착용되었다. 女服에서는 貴婦人들은 貂鼠皮를 사용하였고 庶民

婦女子는 羊皮, 氈氈등을 사용하였다.<sup>14)</sup> 이러한 毛皮들은 北方部落 거주민들이 매년 貢納하였고 이는 高麗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1〉 또한 이 때문에 貂皮로서 계산하는 단위로 삼았다. 《元典章》皮貨則例에 각종 獸皮와 貂皮의 환산비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에 虎皮의 가격이 가장 높아 貂皮 50장으로 환산되었고 그 다음이 金錢豹皮로 貂皮 40장과 같았고 狐皮가 가장 낮아 貂皮 2장 정도였다. 花猫, 香獐, 青獺, 竹狸, 水獺등 22종의 中·小獸皮는 貂皮 1장 정도와 같았다. 그러나 貂皮의 가격이 날로 높아졌다고 하였다.<sup>15)</sup>

### 3. 清朝의 滿洲服飾에서 裘

清代 平民服의 일반적인 복제구성은 袍, 褂, 襖, 背心, 衫, 袴등이 기본이었다. 服制는 袍를 착용하고 그 위에 領衣를 착용하였다. 袍의 形制는 士庶·平民男女가 同一하였는데 上衣·下裳을 각각

12) 王宇清, (民國 73), 앞의 책, p.146.

13) 周錫保, 앞의 책, p.374.

14) 沈從文, 《中國古代服飾史研究》, 台北: 南天書局公司, 民國 77, p.388~392.

15) 바로 앞의 책, p.392.

〈표 1〉 蒙古의 毛皮 요구 및 高麗의 提供

王別\區分	蒙古의 要求	出 處	高麗의 贈物/朝貢	出 處
高 宗 (1213~1259)		蒙古元首 함진 외 2명에 水獺皮 선물	〈高麗史〉世家 卷22 高宗1. 己卯6年正月	
	水獺皮 1萬領	〈高麗史〉世家 卷22 高宗1. 庚辰7年8月		
			水獺皮	高宗1. 甲申11年正月 乙酉12年正月
	水獺皮 2萬領	〈高麗史〉世家 卷23 高宗2. 申卯18年12月	撒禮塔에게 水獺皮 75領. 그 家族 및 部下에게 164領	〈高麗史〉世家 卷23 高宗2. 申卯18年12月
			水獺皮 977領	高宗2. 壬辰19年4月
			水獺皮 약간	〈高麗史〉世家 卷24 高宗3. 癸丑40年11月
元 宗 (1259~1274)			水獺皮 77領	〈高麗史〉世家 卷25 元宗1. 壬戌3年12月
			水獺皮 500領	元宗1. 癸亥4年4月
忠 烈 王 (1274~1308)			虎皮 약간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1. 乙亥元年6月
			狐皮 및 豹皮 각9領 水獺皮 27領	〈高麗史〉世家 卷30 忠烈王3. 癸巳19年12月
		豹皮 18領 水獺皮 81領	〈高麗史〉世家 卷31 忠烈王4. 甲午20年正月	
			狸皮 76領 豹皮 283領 漳皮 400領	忠烈王4. 乙未21年 윤 4월
		虎, 豹皮 各13領 水獺皮 76領	忠烈王4. 丙申22年 11월	
忠 肅 王 (1313~1330) (1332~1339)			虎, 豹, 熊皮 약간	〈高麗史〉世家 卷35 忠肅王2. 戊寅7年8月
忠 惠 王 (1330~1332) (1339~1341)			虎, 豹皮 약간	〈高麗史〉世家 卷36 忠惠王. 2年3월
忠 穆 王 (1334~1348)	羊, 羊皮	〈高麗史〉世家 卷37 忠穆王. 乙酉元年7월		
恭 愍 王 (1351~1374)	毛 皮	〈高麗史〉世家 卷37 恭愍王1. 甲午3年5월	熊, 羊皮 약간	〈高麗史〉世家 卷38 恭愍王1 癸巳2年正月

만들어 숨縫하는 방식이었다. 소매에 馬蹄袖를 부착하는 袍는 滿洲族 男子와 八旗에 속하는 婦人들에 限하여 착용할 수 있었다. 袍와 褂는 王公과 百官의 常服이었으나 士人, 平庶民의 중요한 禮服이었다. 長袍는 開釵가 크게 되는데 官吏와 士人은 左에, 王族宗室은 前後에 두었다. 노동자와 平民은 袴가 基本服이었고 馬夫, 侍童등은 短衫에 窄袴를 착용하였다. 手工業人들은 四季를 막론하고 袴를 착용하였고 禮訪時와 명절에는 그 위에 長衫, 長袍를 착용하였다.

《大金國志》에서 男女冠服에 대하여 서술한 것을 보면 “金の 풍속은 원래 白色을 좋아하고 蠶桑이 생산되지 않아 거의가 織布를 衣服材料로 사용하였고 貴賤은 粗細로 區別하였다. 또한 아주 추운 기후 때문에 毛皮가 아니고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富者들은 봄, 여름에는 紵絲나 錦裯으로 衫裳을 만들어 입었거나 혹은 細皮나 細布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을과 겨울에는 貂, 鼠, 狐, 貉, 羔皮등으로 裘를 만들어 입었고, 貧者는 봄, 여름에는 葛布로 衫裳을 만들어 입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牛, 馬, 猪, 羊, 猫, 犬, 魚, 蛇皮, 獐, 鹿皮로 衫을 만들어 입었다.”<sup>16)</sup> 滿洲族이 遼東이나 沈陽地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풍속이 바뀌지 않았다.<sup>17)</sup> 당시 滿洲族의 生活條件은 비록 점차로 南部地方(中國 땅)으로 옮겨감에 따라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농업과 수렵을 위주로 하는 民族이라 紡績할 줄은 몰랐다. 《建州見聞錄》에 의하면 建州地區에는 女工이 짜는 것은 오직 麻布가 있을 뿐이라고 하여 綿紡이나 絲績은 거의 없었고 다만 明, 朝鮮과의 互市를 통해서 特產品과 얼마간의 布와 絲績品을 교환하였으나 그 量 또한 아주 적어서 고려할 정도가 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에서 얻은 獸皮로서 옷을 지어 입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고 실용적이었던 것이다.

李朝 宣祖 때(1595년) 申忠一이 쓴 《建州圖錄》이라는 책에 그 당시에 보았던 누루하치의 服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누루하치는 머리에는 貂皮帽를 쓰고 貂皮揮項을 착용하였으며 몸에는 五采의 용무늬를 한 天蓋를 입었는데 上衣의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고 下衣의 길이는 발까지 내려오는 것으로서 모두 貂皮를 재단하여 가장자리에 장식을 하였다. 여러 장수들 또한 용무늬의 옷을 입었는데 다만 가장자리 장식은 貂皮, 또는 水獺, 혹은 山鼠皮를 썼으며, 발에는 황색 또는 녹색의 兀喇靴을 신었다. 平民, 百姓이 입는 것으로는 품질이 좋지않은 狐皮, 鹿皮 또는 더한층 질이 떨어지는 犬, 猫의 가죽이었다.”<sup>18)</sup>라고 하였다.

縫製方法도 비교적 간단하여 몇장의 큰 毛皮를 가지고서 조금 재단하거나 칼로 다듬어서 바느질하여 袍나 褂를 만들어 추위를 막았을 뿐이었다.

滿洲族이 中原에 들어온 이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滿洲귀족 계층간에 있어서 皮衣를 입는 풍속은 더욱 증가되었다. 게다가 漢族의 발달된 가죽 다루는 기술이 더하여져 더욱 그들에게 皮衣를 입는데 있어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어 이로 말미암아 毛皮를 입는 方法도 더욱 발전되었다. 그들은 겨울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皮衣를 착용하였는데 각종의 精美한 絲綢 및 錦緞으로 치장을 하여 大毛, 小毛등을 적합한 계절에 맞추어서 새롭게 두툼고 얇은 각기 다른 毛皮로 바꾸어 입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아름답고 귀한 毛皮를 사용하여 滿洲族이 입는 옷의 깃, 소매끝에 붙이는 緣飾을 하여서 出鋒이라고 하였다. <그림 4>

일반적으로 털을 밖으로 하지 않았는데 털 색깔이 좋은 貴한 毛皮를 얻게되면 아름다움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털이 밖으로 向하도록 해서

16) 沈從文, 앞의 책, p.353.

17) 王云英, 《清代滿洲族服飾》,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1985, p.11

18) 바로 앞의 책,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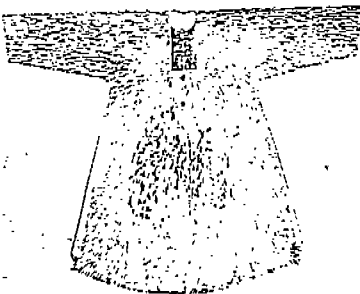
〈그림 4〉 淸 乾隆年間的 婦人服 袂에 貂裘가 出鋒된 對襟 長襟을 입은 淸代 初期의 服飾이다.  
(中國古代服飾史, 彩色圖 27)

皮衣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를 里外發燒라고 하였다.<sup>19)</sup>

淸朝의 官服制度 가운데 털이 밖으로 向하도록 하는 皮褂子를 滿洲語로는 打呼라고 하였는데 《大清會典》에서는 이를 端罩라고 불렀다. 이褂子의 形制는 大襟圓領, 平袖에 길이가 무릎까지 오도록

하였다. 端罩는 皇帝로부터 王公과 百官중에 貝子 職品 이상을 가진 사람이 겨울철에 입는 一種의 예복인데 朝賀때나 혹은 기타 典例時 안에 龍袍나 袍 또는 朝服을 입을 때 그 위에 덮쳐서 입었다. 사실 이것은 滿洲族의 皮衣를 着用하는 遺風이 官服制度에 반영된 것으로서 그것 역시 신분등급에 따라 입는 毛皮가 차이 나도록 규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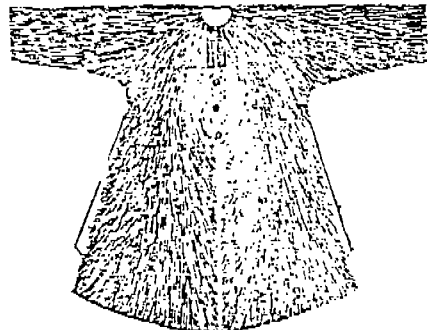
이를테면 皇帝나 皇子는 모두 紫貂皮를 겉으로 하고 明黃色 및 黃金色 비단으로 안을 댄 褂子를 착용하였고, 〈그림 5, 6〉 親王, 郡王, 貝勒, 貝子<sup>20)</sup> 들은 모두가 靑狐皮를 겉으로 해서 月白緞으로 안을 댄 褂子를 착용하였다. 〈그림 7〉 一等侍衛는 豹皮에 貂皮를 섞어 겉으로 하고 月白緞을 안으로 하였으며, 〈그림 8〉 二等侍衛는 紅豹皮를 겉으로 하고 素紅緞으로 안을 하였고, 〈그림 9〉 三等侍衛는 黃狐皮를 겉으로 하고 月白緞을 안으로 한 褂子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康熙帝 이후로는 玄狐를 더 귀중히 여겼고 貂皮를 그 다음으로 하였으며 또한 玄狐는 오직 王公 이상만 착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게다가 閣臣이 아니면 이것을 賞으로 내려줄 수 없도록 하였다.<sup>21)</sup>



〈그림 5〉 皇帝用 端罩(蒙古服飾, P.549)



〈그림 6〉 淸代皇帝貂皮端罩  
(淸代滿族服飾, 그림 2)



〈그림 7〉 王貝勒等用 端罩  
(蒙古服飾, P.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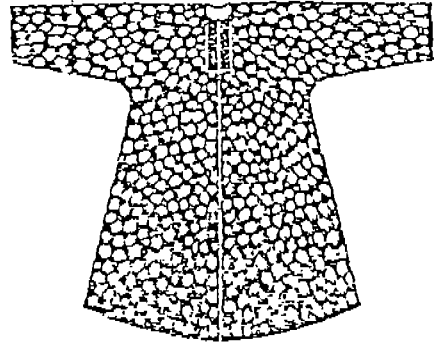
19) 바로 앞의 책 p.12. 13.

20) 淸皇帝의 아들의 等級을 나타낸 명칭임

21) 周錫保, 앞의 책, p.482.



〈그림 8〉一等侍衛用端罩(藝古服飾, P.591)



〈그림 9〉二等侍衛端罩(中國古代服飾史 P. 514)

《燕行錄選集》에서 皇帝 및 王公의 官服制度에 관한 記錄을 보면, “大裘는 곤룡포의 制度와 같으나 옷자락이 길고 겹은 검은 여우가죽으로 하였다. 王公의 表裘는 검은 여우가죽으로 하였으며 民間출신의 公, 侯, 伯의 表裘는 貂皮로 하였다.”<sup>22)</sup> 이 기록을 《大清會典》기록과 비교해 보면, 皇帝나 王公등이 입었던 大裘나 表裘가 端罩였음을 알 수 있다.

清代의 軍服 및 朝服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는데 추울 때는 毛裘를 입었다. 이것은 깃이 없기 때문에 裘襟 또는 項圈이라고 하는 긴 털가죽으로 목을 둘러 감쌌으며 帽子 및 裘飾은 위로 貂皮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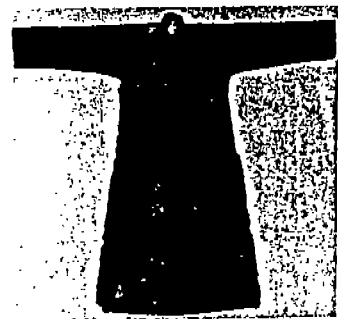
터 狐·貉·鼠·獾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급이 있었고 銀鼠皮와 黑狐皮는 禁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裘를 입을 때는 반드시 뒤를 터 놓는데 이것은 말을 탈 때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宗親이나 覺羅(旁支子孫)들은 양편을 1尺쯤 터놓아 스스로 구별이 되게 하였다.<sup>23)</sup>

旗袍는 滿洲族 고유의 服裝으로 東아시아系의 胡服인데 홀웃이 衫, 겹웃이 袍라는 명칭으로 漢代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淸의 旗袍는 통소매의 長袍로서 지금은 이와같은 旗袍樣式의 服裝이 蒙古, 티벳 뿐만 아니라 中央아시아나 沿海洲의 원주민들 사이에도 착용되고 있고, 베트남 國民服인 아오자이도 길이가 긴 旗袍의 일종으로 옆트임



〈그림 10〉外加毛在外表之皮衣, 端罩 (中國古代服飾史, P.517)



〈그림 11〉內面毛皮 부착 繡花 潤邊旗袍 (中華服飾圖錄 P.239)

22)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Ⅲ)》 서울: 敎文社, 1982, p.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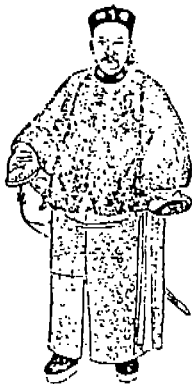
23) 바로 앞의 책, p.226~271.



이 더욱 커진 것이다.

旗袍에는 겹,綿을 넣은것,毛皮로 안을 댄것 등의 3가지가 있는데 겹으로 된것은 봄철에, 면을 넣은 것은 가을철, 모피로 안을 댄 것은 겨울철에 착용하였다. <그림 11>

清代에 간편하게 착용되었던 毛皮上衣중에 馬褂가 있었는데 이는 唐의 半臂의 영향을 받아 宋, 遼, 金, 元代 騎士들이 착용하였던 貉袖의 遺制로 明代에서는 大襟衣라고 하였다. 淸初에는 원래 兵營에서 입던 上衣였으나 점차 男女貴賤없이 一般 便服으로 사용되던 것이 일종의 예복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半袖였으나 清代의 것은 팔뚝길이다. 옷 길이는 허리까지이며, 襟形에 따라 對襟, 琵琶襟, 大襟馬褂등의 여러가지 모양이 있었다. 大袖對襟馬褂는 行裝時 外褂를 代替하여 착용되었고, 大小官員이 손님을 맞을때 착용하였다. 大襟馬褂는 便服類에 속했다. 翻皮馬褂는 털이 길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乾隆 年間에 입기 시작하였다. 기이하여 처음에는 착용자가 극히 적었다. 玄狐, 紫貂, 猞猁孫, 紫羔등이 재료로 사용되었고 喪을 입은 者는 銀鼠, 麥穗子등을 사용하였다.<sup>24)</sup> 이 馬褂는 馬古子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朝鮮 말기 이후에 유행되었다. <그림 12>



<그림 12> 翻皮馬褂  
(中國古代服飾史 P.517)

## V. 結 言

本 研究는 中國의 北方 및 東北方地域에서 오랜 세월동안 부족단위로 생활하여 오다가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中原을 점령하고 異民王朝를 수립하였던 遼의 契丹族, 元의 蒙古族, 淸의 滿洲族 服飾에서 裘衣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있다.

이 지역의 동절기는 혹한의 날씨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하여 복식도 한대성 복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毛皮는 방한용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것이었다. 이들이 착용하였던 毛皮로 만든 防寒用 外衣, 즉 裘의 形制는 대체로 털을 안으로 하여 만든 窄袖의 長袍였고 말을 타기에 편리하도록 옆이나 뒤를 터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中原을 정복한後 中國의 복식과 어우러지면서 形制도 점차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재료는 주변에서 획득 가능하였던 모든 종류의 동물 모피가 사용되어졌고 身分에 따라 毛皮 사용의 수량, 종류, 색깔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契丹服飾에서 裘의 形制에서는 男女上下의 區分이 없었으며 皇帝는 銀貂裘, 貴人들은 紫, 黑, 靑貂 및 銀鼠裘등을 착용하였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색의 貂裘와 羊, 鼠, 沙狐裘등을 입었다.

元代에는 毛皮의 사용량도 증가하게 되어 北方部落 거주민들의 공납에 의하여 대부분 조달되었고 이는 高麗史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帝王들은 紫貂, 銀鼠, 白狐, 玄狐裘등을 착용하였고 소매나 깃에 다른 종류의 毛皮를 대기도 하였다. 貴婦人 및 侍從, 士庶들은 다른색의 貂鼠皮裘, 일반서민과 부녀자들은 낮은 질의 毛皮등을 사용하였다.

滿洲族이 中原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女眞의 옛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여 貧富貴賤을 불구하고 모두 毛皮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나 사용된 모피의 質과 量은 相異하였다. 富者들은 貂, 鼠, 狐, 貉, 羔皮등을 사용하여 裘를 만들어 입었고 貧者는

24) 周錫保, 앞의 책, p.489.

牛, 馬, 猪, 羊, 猫, 犬, 蛇, 獐, 鹿皮등으로 衫을 만들어 입었다.

滿洲族의 中原 진출이후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皮衣를 입는 풍속도 많이 변해졌다. 즉 漢族의 발달된 가죽 다루는 기술과 풍부한 비단등을 사용하여 毛皮服 착용방법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즉 털을 밖으로 向하게 하여 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비단을 모피복의 안감이나 걸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모피복의 形제도 변화되어졌다. 길이가 무릎선, 둔부선, 또는 허리선으로 다양해 졌고 소매 길이도 팔뚝길이 정도로 짧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같이 中原에 征服王朝를 수립한 뒤 國俗의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소수의 지배계층으로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원만하게 통치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문화의 수용 내지 동화는 필연적이었다.

또한 匈奴-鮮卑-突厥-遼-金-元-清으로 이어져 내려온 東北, 北方異民族의 服制를 기본으로 하여 漢族의 복식체제를 수용하고 변용, 장제한 복식제도는 裘衣制度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參考文獻

#### 一 國 內 一

- 金渭顯, [遼金史研究], 서울: 禮禮出版社, 1986.
- 朴相圭, [滿洲風俗圖錄], 서울: 亞細亞文化史, 1985.
- 朴相圭, [蒙古風俗圖錄], 서울: 亞細亞文化史, 1985.
-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編(Ⅲ)], 서울: 敎文社, 1982.
- 任明美, [蒙古服飾], 서울: 耕春社, 1992.
- 鄭麟趾 外 [高麗史], 文宗元年, 1451.
-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 서울: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 편찬위원회편, 1974
- [舊唐書], 서울: 景仁文化史篇, 影仁本, 1977.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史研究], 台北: 南天書局公司, 民國 77.
-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台北: 世界地理社 民國 73.
- 王云英, [清代滿洲族服飾],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1985.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 75.
- [遼史], 서울: 景仁文化史篇, 影仁本, 1979.
- [元史], 서울: 景仁文化史篇, 影仁本, 1979.
- [大金國誌], 四庫全書, 圓光大學校出版社.
- 秦孝儀, [中華五百年文物集刊, 服飾編], 台北: 裕台公私, 民國 75.
- 田村實造, [契丹族 服飾의頭髮ルフレてその胡帽]卷 33, 12號, 12月.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1984.
- 鄭福南, [中國服飾에서 裘에 關한 研究], 服飾第21號, 韓國服飾學會, 1993.
- 鄭福南, [갓옷에 關한 研究], 服飾 第23號, 韓國服飾學會, 1994.
- 李東香, [遼末女眞社會의 構成] 淸州大學校 論文集 17, 1984.
- 孫京子, [蒙古·韓國服飾의 相關性 研究(1)], 服飾 第14號, 韓國服飾學會 1990.
- 孫京子, [蒙古·韓國服飾의 相關性 研究(2)], 服飾 第16號, 韓國服飾學會, 1991.
- 高福南, 趙孝順, [東北亞細亞古代服飾의 比較研究], 明知大學校 論文集 13, 1982.

#### 一 論 文 一

## ABSTRACT

### A Study of Ku on the costume of the variant races dynasty in China —based on Khitai, Mongols and Manchus costume—

Prof. Jung Bok N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age of National Science  
Gyeong Sang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u which was worn by nomadic tribes which was Khitai, Mongols and Manc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ur clothes were very important clothes that nomadic tribes put on in order to protect them against the cold. The Ku was an outfit for protection against the cold. It was made of animal fur and its style was tight sleeve and long dress.

2. The Ku was worn in all social classes including emperor, nobles and the masses in ancient China and Asia dynasty.

After the nomadic tribes established dynasty

in China the style of Ku was changed. All kinds of animal fur was used to make the Ku but the volume of fur, kinds and colors were classified severely by their social position.

In Khitai dynasty the Ku was worn in same style. But the emperor wore the Ku of silver marten. The noble class wore the Ku of purple, black and blue marten and silver squirrel skin. The masses wore the Ku of the other colors marten, sheep, squirrel and desert fox skin.

In Mongol dynasty, the emperor wore the Ku of purple marten, silver squirrel, silver fox and black fox skin. The nobles wore the Ku of the other colors marten and squirrel. The masses wore the Ku of degraded animal fur.

Before the Manchus established the variant races dynasty in China, the rich man preferred the Ku of marten, squirrel, fox, goat furs. But the poor man preferred the Ku of cow, horses, pig, sheep, cat, dog, snake and deer skin.

After the Manchus conquered the China, the manners of dress were changed.

Generally the fur did not appear in right side of garment, but high quality or noble fur appeared outside. Sometimes the inside or outside of Ku was made of silk fabrics and sleeves, neckband was made of the high quality fur.